

#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충남지역 관광산업 구조 특성 분석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Chungnam Area Tourism Industrial Structure by Dynamic Shift-Share Analysis

최승묵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Seung-Mook Choi(mook@chungwoon.ac.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관광분야 국내외 변이할당분석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지역 산업환경은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충남도청 이전 등 내부적인 환경변화가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충남지역 관광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 관광산업 | 충남지역 |

### Abstract

Based 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of tourism establishments in Chungnam area for the period from 2009 to 2013,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growth characteristic of tourism industry using dynamic shift-share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are obtained from 「The Census on Basic Characteristic of Tourism Establishments」. This study decomposes characteristics of Chungnam Area tourism industrial structure into three components: national growth effect, industrial mix effect and regional share effect. The results help to well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the competitive situation of Chungnam area tourism industry.

■ keyword : Dynamic Shift-Share Analysis | Tourism Industry | Chungnam Area |

## 1. 서론

많은 국가에서 관광산업은 서비스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1],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2-4].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을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2009년), 5대 유망 서비스산업(2014년)으로 선정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사회·문화 활성화를 기대하며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관광개발 투자 유치, 지역 관광 브랜드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5-7].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

\* 본 연구는 2014년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1월 16일

수정일자 : 2015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2월 24일

교신저자 : 최승묵, e-mail : mook@chungwoon.ac.kr

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8], 이는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및 성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9]. 따라서 관광산업을 국가 또는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관광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관광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10].

지역 관광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지역산업 연관분석, 경제기반분석, 변이할당분석 등이 있다[9].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특정시점에서 지역별 관광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데 유용하지만, 시간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하는 단점이 있다[11]. 경제기반분석은 기반산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성장하는 산업을 찾거나 산업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에 한계가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에는 변이할당분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9]. 변이할당분석은 분석절차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시계열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두 시점의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관광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국외에서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관광산업 구조분석 연구[14-20]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관련 연구[4][11][21-23]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비교정태분석의 특징을 갖는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간의 초기와 말기의 조건만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초기와 말기 사이의 구조변화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청남도 지역(세종특별자치시 포함)의 관광산업 종사자 수와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고 충남지역 관광산업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지역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년 7월 1일),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이전(2012년 12월 26일) 등 커다란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증가율(1.58%)도 경기도(1.65%)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분석 대상 지역의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경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남지역의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산업 구조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와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변이할당분석 및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학 등에서 고용 구조 변화 요인을 분석하거나 미래 고용 및 산업구조 등을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변이할당분석은 지역경제 지표(종사자 수 등)를 사용하여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의 성장 요인을 국가성장 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로 구분한다. 국가성장 효과는 해당지역 특정 산업의 경제 성장 중에서 국가 전체 모든 산업의 평균 성장률에 의해 유발된 성장규모이다. 산업구조 효과는 전국 각 산업 성장률과 전국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해당지역 특정 산업에 대해 유발한 성장규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할당 효과는 해당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의해 갖게 되는 타지역 대비 지역 경쟁력을 의미한다[24].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CE = E_{ij}(0) \times \frac{E(t) - E(0)}{E(0)} + E_{ij}(0) \times \left[ \frac{E_i(t)}{E_i(0)} - \frac{E(t)}{E(0)} \right] + E_{ij}(0) \times \left[ \frac{E_{ij}(t)}{E_{ij}(0)} - \frac{E_i(t)}{E_i(0)} \right]$$

위 식에서  $TCE$ 는 지역 총성장,  $E_{ij}$ 는  $j$ 지역  $i$ 산업 종사자 수,  $E_i$ 는 전국  $i$ 산업 종사자 수,  $E_j$ 는  $j$ 지역 전산업 종사자 수,  $E$ 는 전국 전산업 종사자 수,  $t$ 는 비교연도,  $0$ 은 기준 연도를 의미한다.

변이할당분석은 지역 및 도시경제 성장의 획적인 차원과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이다[5]. 변이할당분석의 장점은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간단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 등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가 축적된 경우에는 이미 분석을 통해 수립하려던 정책의 시의성이 사라진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변이할당분석의 장점은 분석의 간편성과 시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25]. 이런 이유로 관광분야에서도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26]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변이할당분석은 각 산업별·요인별 변화량을 단순히 양적 크기로만 나타내며[27], 지역성장 격차의 근본적인 요인을 모두 설명해 주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28].

변이할당분석은 기본적으로 비교정태분석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비교정태분석의 특징에 따라 분석대상 기간의 초기(기준연도)와 말기의 조건만 고려대상이며, 분석 대상 기간 중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변이할당분석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교정태분석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즉 변이할당분석을 매년도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2013년 기간 중 관광산업의 변화요인을 분해할 경우, 2009년 말에서 2010년 말 기간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이어서 2010년 말에서 2011년 말 기간에 대한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12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분석한 이후에 이들 4개의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이라 한다.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은 산업구성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비교정태분석 기간을 단기간으로 구분하여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산업구조의 변동요인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29].

## 2. 국내외 선행연구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관광분야 국외 연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들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관광산업 성장 특성 및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국가간 비교·분석 연구[1][14-15][18-20]들은 주로 분석대상 국가를 방문한 연도별 외래관광객 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각 국가들의 관광시장 주요 성장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국가가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는지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나의 국가 내 특정 지역 관광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한 연구[16-17]들은 분석에 주로 각 지역의 관광수입 또는 관광산업 종사자 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11] 역시 상대적 경쟁력 등을 제시하였다.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국내 관광분야 연구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광역지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지자체 관광산업 전반의 성장 및 구조 변화를 분석[4][11][23]하거나, 리조트 산업[21], 호텔업[22] 등 세부 관광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관광업종(예: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또는 영업 분야(예: 객실부문, 식음료부문 등)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광역지자체 등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수립,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등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비교정태분석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 기간 중 발생하는 관광산업의 성장 및 구조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3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 후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할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에 발생한 변화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은 분석 대상 기간 중 누락되는 시점이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이 갖고 있는 분석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은 비교적 간단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 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25].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관광산업관련 기초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각 연도별 기초자료를 누락 없이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변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생산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광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승인통계이다.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는 광역지자체별 관광사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변수 중 본 연구의 분석에는 국내외 선행연구들[4][11][16-17][21-23]이 변이할당분석에 활용한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변수를 적용하였다.

####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로 설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분리된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명칭은 ‘충남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활용가능한 최근 5년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09년부터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시점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는 2013년 자료(2014년 10월 공표)이다.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에 활용가능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관광산업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세분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 중 국제회의업과 카지노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남지역 관광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된다[표 1].

표 1.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전국					충남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 수	전체	168,940	186,395	204,579	229,664	227,139	4,680	5,068	4,690	5,491	8,059
	여행업	46,989	49,928	59,287	69,992	70,574	1,274	1,454	1,691	1,583	3,642
	관광숙박업	56,530	60,402	62,783	70,802	63,899	1,554	1,860	1,227	1,797	1,050
	관광객이용시설업	8,575	9,528	9,741	11,882	13,530	507	498	168	199	355
	국제회의업	8,737	11,018	12,638	13,601	14,092	0	0	0	0	0
	카지노업	6,212	7,248	6,923	7,422	8,452	0	0	0	0	0
	유원시설업	10,946	11,545	13,492	14,388	14,442	597	451	548	757	992
관광편의시설업	30,951	36,725	39,715	41,577	42,150	748	804	1,057	1,155	2,020	
매출액	전체	154,298	179,311	201,975	235,550	232,890	2,854	2,374	2,781	2,908	3,059
	여행업	27,504	31,994	44,021	59,091	57,988	293	499	341	468	181
	관광숙박업	50,927	55,420	61,409	70,569	70,855	1,257	952	1,037	1,006	919
	관광객이용시설업	13,177	15,267	17,256	19,020	21,668	615	271	55	373	285
	국제회의업	13,211	19,861	20,270	22,975	24,083	0	0	0	0	0
	카지노업	23,067	23,268	23,117	24,604	26,310	0	0	0	0	0
	유원시설업	8,515	9,505	10,435	11,819	13,241	480	329	877	637	821
관광편의시설업	17,897	23,997	25,462	27,472	18,744	209	322	471	424	8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IV. 분석 결과

1. 관광산업 종사자 수 분석

[표 2]는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이다.

표 2. 관광산업 종사자 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  
(단위: 명)

구분	2009년 ~ 2010년	2010년 ~ 2011년	2011년 ~ 2012년	2012년 ~ 2013년	2009년 ~ 2013년
국가성장 효과(A)	484	494	575	- 60	1,493
산업구조 효과(B)	- 69	4	10	- 55	- 110
지역할당 효과(C)	- 28	- 875	215	2,684	1,997
지역 총성장 (A+B+C)	387	- 376	800	2,568	3,379
순상대 효과(B+C)	- 97	- 870	225	2,628	1,886

2009년~2013년 기간 중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에 의한 국가성장 효과 1,493명은 각 연도간 국가성장 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다. 산업구조 효과와 지역할당 효과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충남지역 관광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2009년~2010년 및 2010년~2011년에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반면 2011년~2012년 및 2012년~2013년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국가성장 효과보다 실제 증가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기간 전체적으로도 국가성장 효과 합계 값(1,493명)보다 지역 총성장 값(3,379명)이 큰데, 이는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증가 추세가 전국 추세를 상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3. 세부 관광산업 종사자 수 변이할당분석 결과(2009년~2013년)

구분		국가성장 효과(A)	산업구조 효과(B)	지역할당 효과(C)	지역 총성장(A+B+C)	순상대 효과(B+C)
일반적 변이할당 분석	전체	1,612	- 16	1,783	3,379	1,767
	여행업	439	201	1,729	2,368	1,929
	관광숙박업	535	- 333	-707	- 504	-1,039
	관광객이용시설업	175	118	-445	- 152	- 327
	유원시설업	206	- 15	204	395	189
	관광편의시설업	258	13	1,001	1,272	1,014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	전체	1,493	- 110	1,997	3,379	1,886
	여행업	463	207	1,697	2,368	1,905
	관광숙박업	473	- 311	-665	- 504	- 977
	관광객이용시설업	119	13	-284	- 152	- 271
	유원시설업	165	- 17	247	395	230
	관광편의시설업	273	-2	1,002	1,272	999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 3개의 성장 효과 중 산업구조 효과와 지역할당 효과의 합을 순상대 효과(net relative change effect)라 하는데, 국가적 성장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역 경쟁력에 의해 유발된 성장 규모를 의미한다[11]. 순상대 효과 역시 2009년~2010년 및 2010년~2011년에는 부(-)의 값이나, 2011년~2012년 및 2012년~2013년에는 양(+)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분석대상 기간 중 충남 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의 증가는 충남지역의 내부적 산업환경이 양호하여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분석기간 전체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일반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국가성장 효과는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산업구조 효과 및 지역할당 효과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표 3]. 이는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이 분석대상 기간 중의 변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는 연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의 장점이기도 하다[23].

세부 관광산업 종사자 수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업(1,905명), 관광편의시설업(999명), 유원시설업(230명)의 순상대 효과 값이 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세부 관광산업은 충남지역 내부적 산업환경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관광산업 매출액 분석

[표 4]는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충남지역 관광산업 매출액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이다.

표 4. 관광산업 매출액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 2010년	2010년 ~ 2011년	2011년 ~ 2012년	2012년 ~ 2013년	2009년 ~ 2013년
국가성장 효과(A)	463	300	462	- 33	1,192
산업구조 효과(B)	- 79	78	- 32	22	- 11
지역할당 효과(C)	- 864	29	- 303	162	- 976
지역 총성장 (A+B+C)	- 481	407	128	151	205
순상대 효과(B+C)	- 943	107	- 335	184	- 988

충남지역 관광산업의 매출액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격년 형태로 국가성장 효과가 지역 총성장을 상회(2009년~2010년, 2011년~2012년)하거나 하회(2010년~2011년, 2012년~2013년)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지역 관광산업 매출액 증가 추세는 전국 추세를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의 순상대 효과도 격년 형태로 부(-)와 양(+)의 값을 반복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대상 기간 중 충남지역 관광산업 매출액의 순상대 효과(-988억원은) 부(-)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간 중 충남지역 관광산업 매출액 변화는 충남지역의 내부적 산업환경 보다는 국가성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기간 전체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일반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국가성장 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모두에서 일반적 변이할당분석 결과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관광산업 매출액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광편의시설업(496억원) 및 유원시설업(83억원)의 순상대 효과 값이 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세부 관광산업은 충남지역 내부적 산업환경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분석대상 기간 중 전체 관광산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요인은 충남지역의 내부적인 산업환경이다. 즉 충남지역의 인구 유입, 시장 입지, 운송 편의 등 내부적인 산업환경이 이들 세부 관광산업 종사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산업환경은 이들 세부 관광산업의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 산업환경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반면 충남지역의 산업환경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사자 수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세부 관광산업 매출액 변이할당분석 결과(2009년-2013년)

(단위: 억원)

구분	국가성장 효과(A)	산업구조 효과(B)	지역할당 효과(C)	지역 총성장(A+B+C)	순상대 효과(B+C)	
일반적 변이할당 분석	전체	1,454	36	- 1,285	205	- 1,249
	여행업	149	176	- 437	- 112	- 262
	관광숙박업	640	- 148	- 830	- 338	- 979
	관광객이용시설업	313	83	- 726	- 330	- 643
	유원시설업	244	22	75	341	97
	관광편의시설업	106	- 97	634	644	538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	전체	1,192	- 11	- 976	205	- 988
	여행업	162	182	- 456	- 112	- 274
	관광숙박업	485	- 113	- 711	- 338	- 823
	관광객이용시설업	139	51	- 520	- 330	- 469
	유원시설업	258	23	60	341	83
	관광편의시설업	148	- 155	651	644	496

표 6. 충남지역 관광산업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종합

구분	증사자 수		매출액	
	지역 총성장	순상대 효과	지역 총성장	순상대 효과
전체	+	+	+	-
여행업	+	+	-	-
관광숙박업	-	-	-	-
관광객이용시설업	-	-	-	-
유원시설업	+	+	+	+
관광편의시설업	+	+	+	+

분석대상 기간 중 전체 관광산업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남지역의 내부적 산업환경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성장효과와 결과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인구 유입, 시장 입지, 운송 편의 등 내부적인 산업환경으로 인해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충남지역 산업환경은 이들 세부 관광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 산업환경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반면 충남지역의 산업환경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증사자 수와 매출액의 순상대 효과는 같은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관광산업 및 여행업의 경우 부호가 상이하다. 여행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증사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 수는 증가하나 여행사 패키지보다는 개별여행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지역 전체 관광사업체 수 중 여행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 내외인 상황에서 여행업 순상대 효과의 이러한 특성이 전체 관광산업 순상대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1인당 지출액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정된 충남지역 방문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11년 67,082원, 2012년 56,469원, 2013년 52,814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증사자 수도 증가하나, 관광객 1인당 지

출액은 감소하면서 관광사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관광 시장에서 캠핑, 도보여행 등 상대적으로 저비용 여행행태가 확산되는 경향도 관광객 수는 증가하나 1인당 지출액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남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의 산업환경은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증사자 수 및 매출액 증가에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충남지역 관광산업의 증사자 수 및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광산업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면 이들 업종을 더욱 육성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012년-2013년 충남지역 관광산업 증사자 수 및 매출액에 대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결과 순성장 효과가 모두 양(+)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 시기 충남지역의 내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관광산업 증사자 수 및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년 7월),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이전(2012년 12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하면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정주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4년말 약 16만명인 정주 인구는 50만명(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 신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정업무 기능 강화 및 인구 증가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을 순수 관광목적 중심에서 출장 및 업무관련 활동 경제 영역(Visitor Economy)으로 확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 세부 관광산업 증사자 수 및 매출액의 순상대 효과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부 관광산업에 대한 충남지역의 산업환경 경쟁력

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부 관광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충남지역 전체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많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관광산업을 지역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 및 성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관광산업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중 변이할당분석은 분석 절차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2000년대에 관광분야에서도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비교정태분석 특징을 갖는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간의 초기와 말기 사이의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정태분석 특징을 갖는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충남지역의 내부적 산업환경 영향으로 성장한 반면, 매출액은 국가차원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산업환경은 세부 관광산업 중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몇몇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갖는 일반적 변이할당분석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몇 연구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확보 가능성으로 인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외에 관광관련 산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이외 관광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산업 구조 변화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설문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이할당분석의 장점은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이할당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 등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 구조 변화의 주요 영향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관광산업 구조 변화 및 성장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구조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 외에 다양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외에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료 생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M. Yasin, J. Alavi, S. Koubida, and M. H. Small, "An Assess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Moroccan Tourism Industry: Benchmarking Implications," *Benchmarking: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8, No.1, pp.6-22, 2011.
- [2] 김종우, 이연택, "관광클러스터 특성, 지역관광정책과정, 조직간 지식공유 및 지역 관광경쟁력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pp.291-315,



- 2009.
- [3] 심원섭, “한국 관광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pp.161-185, 2009.
- [4] 최승묵,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광산업 비교우위 분석: 지역순성장 효과 및 총시차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8호, pp.61-76, 2013.
- [5] 김태현, 박숙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03-412, 2011.
- [6] 지봉구, 이계희, 김태구,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884-892, 2011.
- [7] 이민재, 이연주, 서원석, “지자체의 관광자원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자체의 관광자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499-509, 2012.
- [8] 김상호, “지역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지역 경쟁력 검증: 충청남도 사례(1998-2008)”,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137-153, 2010.
- [9] 김성록, 이종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충청남도 금강권 산업구조 특성 분석”, 농촌계획, 제20권, 제1호, pp.127-134, 2014.
- [10] 김충실, 이현근, “대구·경북 지역농업의 특화 분석”, 농촌경제, 제33권, 제1호, pp.99-114, 2010.
- [11] 심원섭, 최승묵,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이용한 광역지자체 관광산업 성장 특성 분석”, 관광학연구, 제37권, 제5호, pp.241-260, 2013.
- [12] 유영명, 김형빈, 주수현, “부산지역 산업별 구조변동에 따른 경쟁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pp.295-313, 2010.
- [13] 윤준상, 김성록, “충남도청 이전지역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산업경쟁력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1호, pp.137-148, 2012.
- [14] J. Alavi and M. M. Yasin, “A Systematic Approach to Tourism Polic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48, pp.147-156, 2000.
- [15] M. Fuchs, L. Rijken, M. Peters, and K. Weiermair, “Modelling Asian Incoming Tourism: A Shift-Share Approach,”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5, No.2, pp.1-10, 2000.
- [16] C. Shi, J. Zhang, Y. Yang, and Z. Zhou, “Shift-Share Analysis on Inter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A Case of Jiangsu Province,” Chinese Geographical Science, Vol.17, No.2, pp.173-178, 2007.
- [17] E. Sirakaya, H. Choi, and T. Var, “Shift-Share Analysis in Tourism: Examination of Tourism Employment Change in a Region,” Tourism Economics, Vol.8, No.3, pp.303-324, 2002.
- [18] F. Sobral, A. Peci, and G. Souza,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Tourism Industry in Brazil: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19, No.6, pp.507-512, 2007.
- [19] R. S. Toh, H. Khan, and L. L. Lim, “Two-Stage Shift-Share Analyses of Tourism Arrivals and Arrivals by Purpose of Visit: The Singapore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3, No.1, pp.57-66, 2004.
- [20] M. Yasin, J. Alavi, F. Sobral, and J. Lisboa, “A Shift-Share Analysis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ynamic of the Portuguese Tourism Marke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Vol.17, No.4, pp.11-22, 2004.
- [21] 김학준, “체인 리조트의 브랜치 경쟁력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1호, pp.191-207, 2014.
- [22] 이상민, 이원석, 김학준, “변이할당 분석과 성장률시차 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호텔업 성장에 관한 연구: 객실 부대시설 매출을 기준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3호, pp.203-222, 2014.
- [23] 서성원, 박용린, 빈기범, “변이할당기법을 이용한

- 전국 관광·레저산업의 지역적 비교우위 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4권, 제3호, pp.161-184, 2012.
- [24] 김홍배,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 기문당, 2003.
- [25] 손정수, 이상학, 조정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동태적 변이-할당분석, 2003-2011”, GRI연구논총, 제15권, 제3호, pp.113-132, 2013.
- [26] C. Y. Shi and Y. Yang, “A Review of Shift-Share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i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Perspectives, Vol.1, No.1, pp.21-30, 2008.
- [27] 최재선, 오조환, 설봉식, “우리나라 지방 10대 도시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간 격차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29권, pp.75-111, 1981.
- [28] 원제무, 도시개발분석, 박영사, 2001.
- [29] 손정수, 조정란, 이상학,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요인 분석: 선진국과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3호, pp.23-46, 2014.

저 자 소 개

최 승 목(Seung-Mook Choi)

종신회원



-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문학사)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 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관광학 박사)
  - 2003년 6월 ~ 2014년 2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관광자원 개발, 관광경제, 도시관광